

2014



제15차 감리교청년주일



자료집



2	청년주일서신 / 전용재 감독회장
4	청년주일을 지켜주세요
6	청년주일 예배안
8	청년주일 설교 I / 심은수 목사(베다니교회)
12	청년주일 설교 II / 한희철 목사(성지교회)
16	청년주일 공과
18	청년회 글모음
23	감리교청년회 소개





오는 9월 28일(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제 15차 청년주일(주제: 꼭꼭 숨 쉬어라)입니다.

바라기는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거룩히 성수함으로써, 오늘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을 향한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년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과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앎껏 청년회를 조직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와 민족의 내일과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청년주일을 지키는 일은 바로 청년처럼 건강한 몸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려는 고백입니다.

청년 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교회적 관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청년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킴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15차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각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15차 청년주일과 같이 하셔서 감리교회 청년부흥의 전기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청년주일**로 지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주일이 있듯이 9월에는 청년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감리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력이며 교회의 밑절미인 청년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세대의 감리교회에게 청년다움을 심고 예수를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는 주일입니다.

15차 청년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숨,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사회 안팎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어디서든 교회에서 또한 미래이자 다음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푸르른 시절, 청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영혼은 팍팍한 현실에서 생기를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는 듯한 청년들. 이들이 진정 살게 하는 숨을 쉴으로써 영혼 또한 살아남으로 교회, 사회, 삶의 자리 그 어디서나 살게 하는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벤트 하나 - 개인

감리교청년주일 공과를 진행하며 만든 '인형(인형) 깊은 들이쉴'을 사진에 담아 올려주세요. 각각의 주점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둘 - 단체

감리교청년주일 공과를 진행하며 '함께 그린 그림(한숨)'을 사진에 담아 올려주세요. 각각의 주점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감리교청년주일 공과 다운받는 곳 : <http://www.myfk.or.kr>(감청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youthsunday94>
(감청페이지)
<http://kmc.or.kr>(감리교회홈페이지)

인증샷 올리는 곳 : <http://www.facebook.com/youthsunday94>(감청페이지)

2014년 9월 28일 제석차 감리교 청년주일

생기파파

꼭꼭! 숨쉬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땅의 끝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숨쉬어라!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대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 주세요.
2. 청년주일 설교, 청년주일 성서공부를 해주세요.
3. 청년과 관련된 설교와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4.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5.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 홈페이지 : www.myfk.or.kr
 -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youthsunday94
6. 청년주일 헌금의 일부를 청년지도력양성에 쓰일 수 있게 보내 주세요.
(감리교청년회 : 우리은행 142-422823-13-001)

▶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청년주일로 지킵니다.

▶ 이 날은 감리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력이며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 이와 더불어 이 세대의 감리교회에게 청년다움을 심고 예수님을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는 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예배안

■ 예배로의 초대

■ 묵상기도 - 다함께(중 울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한 숨결을 느끼며 1-2분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 찬 송(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 하여라") - 다같이

■ 교독문(새 찬송가 교독문 97, 청년주일)

인도자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회 중 :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도자 :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회 중 :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도자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대로 행하라

회 중 :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도자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회 중 :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도자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회 중 :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도자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회 중 :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인도자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회 중 :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 대표기도 - 청년회장

■ 말씀봉독 - 인도자

■ 말 씀 - 교회 담임목사(설교 예문 참고)

■ 다짐의 기도 - 다같이

■ 헌금 및 특송 - 청년회 일동(특송 :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 헌금은 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사용해주세요

※ 헌금의 일부를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헌금은 감리교청년회 선교 사업에 쓰입니다.

■ 헌금 기도 - 청년임원

■ 축복의 찬양

※ 온 성도가 함께 청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예시 : 축복의 통로/이삭의 축복/축복합니다)

■ 광 고 - 인도자

■ 축 도 - 담임목사

※ 축도 전에 청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숨으로 살라

창세기 2:7

심은수 목사(베다니교회)

청년, 생기를 잃어버린 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소위 3포 세대라고들 말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졸업을 늦추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위해서 휴학을 한 두 번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자격증을 따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감당해야 하는 학비와 기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더 나아가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그거 갚느라 10-20년 고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자기 노력은 해보지도 않은 채 부모 잘못 만난 탓만 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딱딱합니다.

생기를 빼앗겨버린 청년들에게 <패기가 없다, 도전정신이 없다, 끈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모든 영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IT 기술에 따른 새로운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도전 정신과 열정만으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인간 이해입니다. 창세기 2:7 절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흙으로 사는 존재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심히 기묘한 존재(시139:14)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도 알고 보면 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흙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키워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 있어보이지도, 화려하지도 않

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인간은 생기가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모습입니다(창1:31).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인간은 흠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생기)이 살아 있을 때에만 세상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채 흠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흠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인간은 철저히 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에 글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엿보이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 물질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을 극히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삶에 집착해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독한 현실집착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교도들은 기독교나 불교도처럼 죽은 뒤에 천국이나 극락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는 희망이 애당초 없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며 물질적 향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교수의 말을 들어보니 일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복적 성향이 뿌리 깊은 유교적 내세관에서도 영향을 받았겠구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숨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를 초월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나의 삶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각할 때입니다. 입으로 단지 주님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즉 땅(흠)의 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요일2:16).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

인간의 생명의 호흡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에 생기(루아흐)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숨이 내 입술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 호흡으로 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호흡에 하나님의 숨이 담겨지게 될 때 나의 시선과 관심, 나의 손길은 밖을 향하게 됩니다. 땅으로만, 육신으로만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때부터 나에게는만

향했던 손길은 이웃을 향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나의 입술에 담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탄식과 한숨,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절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교회 출석을 잘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의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기도로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숨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새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요엘서에 약속해 주신 성령도 모든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숨(루아흐)입니다(욥2:28).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존재가 바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마22:37-40).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알았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시51:11).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고전12:3).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 36-37장에 나타난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숨에 의한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깨닫는 사명

성령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합니다. 땅의 존재로 나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안위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렸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십자가의 주님을 두고 모두 떠나버린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면서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명에 충만해지면 소위 나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대기업에 목매지 않고, 대박을 터뜨릴 사업 아이템만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기회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인홀드 니이버의 기도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평정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환경이 바뀔대거나 갑자기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철저히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견고히 붙잡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CPR(심폐소생술)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살아가는 <날마다>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CPR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덧입기 전에는 매우 비겁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들 흩어져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모든 기적의 자리에 함께 했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하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누가 큰자인지, 누가 서열이 높은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눅22:24)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품지 못하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CPR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을 강력한 복음의 전사로 만든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제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그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CPR(심폐소생술)도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날마다>의 영성을 건강하게 한다면 영적 굳은살로 인해 극도로 무뎠진 영혼에 하나님의 CPR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굴방에 들어가 압복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영적인 동반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영적 응집력이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될 때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흙에서 온 존재이지만 흙으로만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숨, 루아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그 분의 숨으로 각자 주어진 사명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세요

창세기2:7

한희철 목사(성지교회)

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남녀노소 따로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다.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꽃을 만나면 감탄하며 발걸음을 멈추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다양한 빛깔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서로 다른 꽃의 모양 때문에, 어떤 이들은 꽃에서 전해지는 향기 때문에 꽃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란 시에서 노래했듯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지 않은 꽃들이 따로 없습니다.

꽃의 빛깔과 모양과 향기도 꽃을 좋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꽃이 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이 지기 때문에 피어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핀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어있다면 우리는 이내 싫증을 내고 말 것입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지만 잠깐 사이에 지나가기에 젊음은 소중한 고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격려하고, 청년들은 젊음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새기는 주일이지요. 오늘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채 꿈과 생기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청년주일을 맞아 주제성구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지극한 겸손함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젊은 시절은 허황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헛된 꿈을 좇아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만드십니다. '땅의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땅 또는 흙을 의미하는 '아마다'와, 먼지 혹은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두 개의 명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의 먼지 혹은 흙의 티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Humility'는 라틴어 '휴무스'(humus)에서 온 말인데, 휴무스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흙에서 왔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재를 이마에 바르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희랍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불쌍한 것. 결국은 구더기 밥!" 조금은 으스스한 표현이지만, 누구도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건강과 미모를 자랑한다 하여도 인간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줌의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 자기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겸손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 지극한 겸손함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면 마침내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지으시고'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짜르'인데, 이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거듭 고백합니다.(사29:16, 사45:9, 사64:8, 렘18:6, 롬9:21) 생각해 보면 놀랍고도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나를 빚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빚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 내 삶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토기장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렘18:4)

'하나님을 크게 웃기려거든 너의 계획을 이야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겠지요. 사랑의 손으로 나를 빚어 세상에 내셨고, 지금도 나를 빚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젊을 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며 살기 바랍니다.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란 '생명의 숨'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비로소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숨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만 흠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채 생기를 잃어버린,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한 줌의 흠과 다를 것이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혼자서 새기는 우리말의 의미 중에는 '말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라는 말을 '말+숨'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하신 말씀처럼 말이지요.

젊은이들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튼 말, 무익한 말, 상처를 입히는 저급한 말을 버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씹어준 암죽을 받아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만 말고, 내 스스로 살아 있는 말씀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처럼 귀동냥하여 듣지만 말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했던 욥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 계신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살아 있는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래도 깨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겔2:5)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두루마리를 먹으라"(3:1)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3:3) 하십니다.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쓰디쓴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꿀 같이 달게'(3:3) 받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창자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소태처럼 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 같이 달게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기를 빕니다. 들숨과 날숨에 말씀이

서려 있는 젊은 신앙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을 함께 실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살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어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처음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크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는 열매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과수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민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에는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에 중심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인 ‘민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로서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성인 남자 10명의 모임을 민안이라 합니다. 박해와 유배를 거듭하던 유대인들에겐 성소마저도 잃겨 다닐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거리를 지나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을 불러도 아무도 그런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 레이첼에게 율법을 가르쳐주신 외할아버지는 민안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민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일곱 살 외손녀 레이첼은 꼭 남자여야 하는지, 여자 10명이 모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지, 옛날부터 그랬다고 다 맞는 것인지, 할아버지께 많은 것을 묻습니다. 율법에 엄격했던 외할아버지는 율법에는 단지 그렇게 쓰여 있다고 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레이첼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해주셨던 할아버지를 잠깐 뵈 수 있는 시간, 레이첼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 잡아드렸습니다. 그 때 외할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뜨고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레이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 혼자로도 10명을 다 채우는 민안이다.”

외할아버지가 레이첼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을 젊은 신앙인인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극한 겸손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기 바랍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청년주일 공과

청년주일 하루만큼은 청년들과 청년주일 공과를 진행해주세요.

■ 숨쉬기 운동

숨을 천천히 쉬어 봅시다.

숨을 빨리 쉬어 봅시다.

숨을 얇게 쉬어 봅시다.

숨을 깊게 쉬어 봅시다.

2명씩, 3명씩 마주보고 쉬어 봅시다.

땅을 보고 쉬어 봅시다.

하늘을 보고 쉬어 봅시다.

■ 한 숨

- ① 커다란 종이에 펑펑한 세대, 나를 숨 막히게 하는 것들을 함께 그려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 ②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겠지요.
- ③ 그것을 최대한 고운 색깔로 칠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 3명에서 최대 6명 정도의 청년들이 진행해주세요.

■ 깊은 들이침

- ① 기운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위안이 필요합니다.
- ② 여러 가지 재료(형깁, 숨, 바늘 등)로 자기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 격려의 말을 적습니다.
- ③ 자기 인형을 위해 잠시 중보기도를 해 줍니다.
- ④ 자신의 인형을 보기 좋은 곳에 진열해봅시다.

※ 형깁 인형 만들기가 여의치 않다면, 클레이, 종이 그림 등으로 인형 만들기를 대체해도 좋습니다.



■ Pause, 쉼. 하나님의 군대

다음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묵상 한 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에스겔 37:9-10)

※ 이야기 길잡이

1. 죽어가는 사람은 대개 자신만 죽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나고 보면 모두가 함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숨이 막히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2. 이 시대, 죽어서 빼만 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3. 그들에게 생기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후련한 내쉬

하나님의 청년은 주저앉아 한탄만 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정해 실천해봅시다.

■ 함께 내쉬는 숨(함께하는 기도)

※ 돌아가면서 모두 한마디씩 기도한 후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공과에 도움을 주신 분
김신애 목사

이벤트 알림!

공과를 진행하며 만든 '함께 그린 그림(■ 한숨)'과 '인형(■ 깊은 들이침)'을 사진에 담아 올려주세요. 각각의 추점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인증 샷 올리는 곳 : <https://www.facebook.com/youthsunday94>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

감리교청년회 사무국

개신교인들의 수가 점점 들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30여년의 역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30년 후에는 개신교인이 지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교인의 노령화도 예상됩니다. 그 교인 감소의 주된 연령층이 젊다는 점과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점이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출산율은 현재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느니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던 공동체이던 청년은 희망이고 미래이며 다음세대로 지칭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교회의 희망이요 미래이며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청년들이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극히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청년들이 부흥이 되는 교회의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수평이동이 대부분이고, 개신교 전체 청년들의 감소 추세를 상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점에서 청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즉, 청년들의 교회에서의 경험에 주목해야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들의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청년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에 실제로 실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더불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는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교회입니다. 청년들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교회의 모습에 실족합니다. 즉, 청년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기독교, 비상식적인 기독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신앙의 문법과 세상의 문법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의 태도에 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의 문제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의 성찰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뉴스를 통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앞에서조차 다른 종교지도자

들이 아닌 특히, 목사들의 입에서 막말논란이 수차례 거듭 되풀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목사들의 언행이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한껏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자본의 논리대로 돈에 눈 먼 형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에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의 진단은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하자로 귀결이 되며, 교회를 크게 하고자 하는 욕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은 주변교회의 수평이동이지, 진정한 성장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성장은 줄고 있을 뿐 작은 교회 죽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언행이 일치된 목사, 진정 이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본보기가 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독단적이며 강압적이지 않으며 청년들을 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자신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목사가 아닌, 가까이 하기엔 너무 가까이 있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과 성역 없이 허물없이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돈을 꼬공 묻어두어 교회나 교세를 확장하기보다는 사회와 이웃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웃에게 더 나눌 수 있는지를 힘쓸 때입니다.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만의 축제를 누리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부가 아닌 청년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는 청년부가 아닌 청년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부와 청년회의 차이는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볼 것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접근이 신중해야 함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봄으로써 교육부서에 청년들을 귀속시키기 되었고 청년들 스스로가 조직을 끌어나가는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볼뿐 교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시선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를 떠나게 될

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실족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윗세대의 가치관이 주입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세대의 가치관과 판단을 청년들에게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은 그들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절에는 그들의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신앙적 가치관과 판단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충분히 성장한 나이이며 그들 스스로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일 것입니다.

‘청년부’가 ‘청년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성과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선과 긴 안목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꺼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며, 여백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은 다시금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삶과 신앙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는 삶과 신앙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말씀과 실제적인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청년들의 마주하는 현실적인 삶이 조화되지 못하고 깊은 괴리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성찰하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고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 세 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린 것입니다. 현재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사포세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폭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저마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지금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삶과 신앙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사역자들이 말씀의 훈련과 더불어 실적인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청년들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 가장 건강

한 것은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복음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체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시기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시기입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과 삶, 복음과 상황에 관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세대 간에 소통이 되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는 세대 간에 소통이 되는 교회입니다. 소통이란 서로의 의견이나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나 각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불통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나 공동체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과 공감의 필요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인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소통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간의 관계에서는 불통이 가져온 갈등이 팽배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년 또한 그 세대 간의 불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청년은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그 중심이 흔들리고 고민하지만 정작 어디 한군데 그 마음 둘 곳 없이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청년에게 어른들은 저마다 느끼는 삶의 무게를 직접 덜어줄 수는 없더라도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도 전에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성급한 판단을 내리며, 지나고 나면 한 단계 성숙되어지리라는 말뿐인 위로 더 나아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앙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은 계속되고 이러한 불통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생각과 그저 이야기하기도 싫다는 결론으로 굳어져 점점 세대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하고 더 이상 서로 통할 수 없게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먼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를 묻는다면 이 시기를 겪어 보았기에 누구보다 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윗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위해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당연한 것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 또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떠나 모든 세대가 소통을 막고 있던 담들을 인정하고, 마주보고 청년이 듣는 입장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불통의 벽이 반드시 허물어지리라 봅니다. 그것이 침묵이거나 단 한 마디일지라도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진심을 통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바라는 4가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실족하는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로 글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원론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벤트와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이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들을 먼저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이 감리교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독교세계 2014년 9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1. 감리교청년회 소개

기독교대한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웨슬리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1897년 시작된 감리교청년(당시 엽윗 청년회 엽윗은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 명칭) 운동은 신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넘어 21세기 통일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충실하며 한편으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숨은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1997년 청년회 창립 100년 행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선교 비전을 세우고 도약하는 청년회 성숙해지는 청년회가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감리교청년회의 목적

- 1)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계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 2)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 사업을 지도계획 실행합니다.
- 4) 세계 감리교 청년운동 및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대하여 기독교청년운동과 교회 일치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교 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앞으로의 과제

그동안 감청은 청년예수의 시대적 요청에 진지한 고민을 계속해 왔으며, 그 속에는 70~80년대의 다소 거친 시기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90년대를 거친 청년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누군가를 위한 부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며 나아가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빠르진 않더라도 꾸준히 느린 걸음을 걸어내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리교청년회 활동

1) 프로젝트

가. 농촌도시사랑나눔 감리교청년체험수련회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어려운 농촌의 이웃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도시청년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결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처한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는 국내선교 프로그램입니다.

- 활동내용 : 여름성경학교, 마을청소, 영정사진 촬영, 안마, 교회보수, 마을잔치, 농사일 거들기 등
- 일시 : 매년 7월-8월 중(농촌교회와 일정조율)
- 참여가능 대상 : 10-15명이 한 팀이 된 청년교회
개인 참가자 혹은 감리교 소속 신학대학교(6월 넷째 주)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연합회 연합수련회로 연결가능

나. 감리교 청년주일



감리교 청년주일은 감리교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주일로 감리교의 모든 청년교회가 청년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청년주일 헌금은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주셔서 지역연합회의 활성화와 성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 일시 : 9월 넷째주
- 활동내용 : 각 지역연합회 청년주일 연합예배 / 청년주일 자료집 배포 / 청년주일 홍보(포스터, 기념품, 영상 등) / 감리교청년정책 토론회

2) 조직강화사업

감리교청년회는 각 지방 감리사님과 교육부를 통한 청년연합회 조직을 제안하며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임원지침서를 만들어서 연합회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지역연합회 모임과 개교회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놀이가 아닌 우리 안의 생명, 평화 감수성 훈련, 그룹 빌딩의 놀이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더욱 탄탄한 신앙과 신뢰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화놀이

목표 : 청년들이 교회 혹은 연합회 내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소통의 지도력을 경험하게 훈련하게 하여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 개체교회 청년회, 청년연합회 모임

시기 : 수시로 섭외 (강사를 파송하여, 1회 2시간, 4시간짜리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인원 : 10명 이상

• 몸으로 성서읽기

성서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납니다. 몸을 이용한 체험적 교육방법으로 쉽고 재미있습니다. 성서를 삶의 이야기로 만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대상 :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청년연합회 등

시기 : 수시로 섭외(강사를 파송하여 4시간 정도의 프로그램 진행)

3) 연대사업

• EYC(Ecumenical Youth of Council) : 기장청년회, 예장청년회(통합), 구세군청년회, 루터청년회, 감리교청년회가 함께 연합하여 만든 청년협의체입니다. 사회사안별 연대, 국제프로그램 연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감리교시국대책위 : 감리교내의 대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연합입니다.

4) 위원회 사업

• 홍보통신위원회

홍보통신위원회는 홍보출판사업과 통신선교 사업을 진행합니다.

- 그루터기 : 격월로 발행되는 감청의 소식지

- 누리집 : www.myfk.or.kr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youthsunday94>
- 감청 리플릿 제작

• 성평등위원회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내 성평등을 이뤄내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 어쩐지 흥분되는 책모임 진행(4월~9월 격주)
- 감리교성평등위원회 연대

• 사회문화선교위원회

감리교 사회문화선교위원회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 교회내의 청년문화를 새롭게 되짚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성서연구위원회

성서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정신에 의해 발견되는 청년예수를 만나기 위해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 체험수련회 교재 만들기
- 청년주일 교재 만들기

• 교육위원회

감청에서 진행되는 제반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 평화통일위원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평화적인 통일 지향의 정책과 감리교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위원회입니다.



후원안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년으로 비전과 사명감으로 청년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위해 저희들 뿐 아니라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후원을 통한 적극적 실천과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 시대와 교회와 이웃과 함께 섬기며 나누겠습니다.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와 참 평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일꾼 감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새천년 정보화 시대를 맞아 민족의 통일시대를 향한 청년활동과 감청의 제2부흥을 선포하고 이웃사랑 실천 및 전인적인 영성훈련, 소식지 발간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향한 활동과 국제선교, 한국교회의 청년 지도자 양육 및 미래일꾼 발굴을 위한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청년선교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회원 뿐 아니라 개체교회 등 단체회원등도 환영합니다. 후원회원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방법

후원계좌 : 142-422823-13-001 우리은행

예금주 :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CMS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http://myfk.or.kr>

작성하신 신청서는 감청메일로 보내주세요 myfk@hanmail.net

퍼낸 날 2014년 9월12일 **퍼낸이** 정수민 **워은이** 사무국
퍼낸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락처** 02.399.2086/2170
주 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누리집 myfk.or.kr & facebook.com/youthsunday94
전자우편 myfk@hanmail.net